

중년여성 기성복 하의의 착용실태 및 맞춤새에 관한 연구

-만 34세에서 59세까지-

A Study on the Actual Wearing Conditions and Fit Preferences of the Middle-Aged Women's Ready-to-Wear Lower Body Clothing

- For women aged 34 to 59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대학원생 김은경
교수 최혜선
강사 이경미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Kim, Eun-Kyong

Professor : Choi, Hei-Sun

Lecturer : Lee, Kyung Mi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ctual wearing conditions and body fit preferences of the middle-aged women's ready-to-wear lower body clothing. The aim was also to analyze lower body recognition, lower body satisfaction, fit preferences and size satisfaction according to age and degree of girth size.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administered to 300 middle-aged women aged 34 to 59. Statistical tests such as descriptive analysis, crosstabs, and χ^2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and ascertai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ges. Lower body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were compared by T-test. Also,

Corresponding Author: Eun-Kyong Kim, Laboratory of Clothing Ergonomics,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Korea Tel: 82-02-571-3177 E-mail: jessokoo@hanafos.com

Anova was used to analyze lower body recognition, satisfaction, fit preferences, and size satisfaction according to age and degrees of girth size.

The results indicated that women aged 50 to 59 were more dissatisfied with the ready-to-wear sizing system and because of their body shapes had changed, their need for a larger size range system had also increased. Moreover, the element that most affected their purchase of ready-to-wear lower body clothing was the design followed by the size. The women, especially of the ages 50 to 59, showed a tendency to be dissatisfied with their lower bodies and they recognized that their lower bodies had thickened compared to women aged 34 to 39 and 40 to 49. Analysis of body satisfaction, recognition, and fit preference according to girth size showed that the group of larger girth size recognized that their lower bodies were thicker and were more dissatisfied and preferred looser fittings than the groups of smaller women.

주제어(Key Words): 중년여성(middle-aged women), 착용실태(wearing condition), 만족도(satisfaction), 인식도(recognition), 선호 맞춤새(fit preference)

I. 서론

중년 여성은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신체 프로포션이 변화하는데, 20대와 40대의 신체는 두신 치수가 같다 하더라도 들레, 너비, 두께 등 인체의 비만에 관련된 항목들에 변화가 있어 체형의 차이가 생긴다. 특히 하반신의 경우 중년여성은 허리선의 구별이 어렵고, 배가 나오며 미혼 여성보다 허리너비와 가슴너비, 허리너비와 엉덩이너비의 차이가 감소하고 엉덩이가 차지하는 체형변화가 나타나고 옆면 실루엣에서는 배가 나옴과 동시에 엉덩이가 등 굽어진다. 또한 엉덩이와 양 옆부분 피하지방이 발달된다(김혜경 외, 2001). 따라서 드롭치인 엉덩이들레-허리들레의 차가 작아져 20대의 평균 드롭치는 23.8cm이고, 40대의 경우 17.1cm로(국민표준체위조사, 1997) 나이에 따라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체형 변화와는 반대로 의복에 있어서 심리적 욕구충족은 중년층도 젊은층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오늘날 주부는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의 관심이 증대되어 생활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패션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어 의류상품의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은 중년에 맞는 디자인을 찾기 어렵고, 다트의 위치, 허리들레 등의 신체변화에 따라 실루엣이 30대 이전과 많이 달라지므로 의복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의복 라벨에 표기된 치수는 이를 착용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의 신체치수를 의미하지만, 같은 치수에 속하는 사람들도 형태적 인자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각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수내역은 업체별로 시행착오를 거쳐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따라 서로 다른 치수 범위와 조합을 사용하고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몸에 맞는 치수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최혜선 외, 1995). 또한 특정 마켓 소비자의 인체특성을 연구하여 마켓 별 표준치수의 설정과 부위별 그레이딩 편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성복의 치수체계는 일반적으로 가슴들레가 커지면 엉덩이들레와 신장이 함께 커지도록 되어 있어서 그 외의 체형에게는 부적합하게 된다. 또한 스커트나 슬렉스패턴의 다트 분량은 20대나 40, 50대나 동일하게 주고 있어 중년여성이 허리들레에 사이즈를 맞출 경우 엉덩이들레가 잘 맞지 않게 되며 엉덩이들레에 사이즈를 맞출 경우 허리들레가 잘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반신의 체형에 따라서 신체 부위별 필요 여유분이 다르며(추희경 외, 1994) 의복 적합성에 대한 판정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발전된 선호도에 의해

해석된 신체와 의복의 관계에 대한 운동 감각 피드백에 근거하므로(Watkins, 1995) 의복의 여유분은 의복의 적합성에 대한 착용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의복의 적절한 맞음새는 개개인의 미적, 기능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Ashdown, 1995).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의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경험에 의해 자신의 체형에 맞는 브랜드를 찾기도 하고, 착용한 후에 의류 치수의 적합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실제로 제품의 라벨에 같은 호수로 표기된 경우라도 브랜드마다 각기 다른 치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직접 착용해보지 않고 치수 표기만으로 자신의 체형에 맞고 적절한 여유분을 갖는 의복을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오설영,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34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기성복 하의의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자신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살펴보고, 실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최대둘레 치수를 측정하여 만족도, 인식도, 선호하는 하의의 맞음새 및 부위별 치수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고 신체적 특징에 적합한 하의의 기성복 치수설정 및 여유분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중년여성의 실제 체형 특성에 따른 만족도, 인식도, 선호 맞음새 및 기성복 부위별 치수만족도를 조사하고, 착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민체위조사 자료 중 성인여성 1,336명의 직접계측자료를 대상으로 집단분리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34세를 기점으로 체형의 변화가 있다는 선행연구(이진희 외, 1994)를 근거로 하여 만 34세 이상 59세 이하를 중년여성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및 인체측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걸쳐 서울 강남과 강북, 김포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총 380부 중 응답이 부실한 80부를 제외한 30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중년여성의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2문항), 하반신체형의 만족도와 인식도에 관한 문항(8문항), 기성복 착용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항(7문항), 선호하는 맞음새(4문항) 및 기성복 하의의 부위별 치수만족도에 관한 문항(6문항), 기성복 하의의 부위별 수선에 관한 문항(6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체측정은 키,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최대둘레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줄자와 투명판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측정자세는 좌우의 발뒤꿈치를 붙인 자연스러운 입위자세로 하였다. 허리둘레는 앞쪽에서 보아 허리부분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에서 수평둘레를 측정하고, 엉덩이둘레는 좌우 넓다리큰돌기점을 지나는 수평둘레를 측정하였으며, 엉덩이최대둘레의 경우 유연한 투명판을 하반신에 둘러 배의 돌출부를 포함한 엉덩이둘레로 하였다. 이러한 엉덩이최대둘레는 엉덩이둘레의 길이는 아니고 그 보다 조금 큰 하반신 각 방향으로 최외방 돌출점을 포함한 길이이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치를 얻어 전반적인 착용현황을 알아보고 교차분석, χ^2 -검증 및 T-검증을 실시하여 연령별 차이, 인식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제 계측치에 의한 체형에 따른 만족도, 인식도, 기성복 선호 맞음새와 각 부위별 치수만족도와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적 차이가 있는 집단에 대하여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신체 치수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표 1>과 같다. 응답자 중 40세~49세가 133명, 50세~59세가 115명, 34세~39세가 52명으로 40대가 전체 중년여성의 44.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출산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34세~39세의 경우 자녀 1명(40.4%)과 자녀 2명(46.2%) 이상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의 경우 2명 이상이 각각 83.5%, 88.4%로 현저하게 많아 연령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가 보여져 같은 중년여성이지만 체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반신 신체치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와 연령대별 모평균의 차이검정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기성복 하의 구입시 의복에 표시되어 있는 신체치수 항목으로는 신장,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항목들은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얻는 함축된 정보로 의복구입시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치수 조사 결과, 키의 경우 34세~39세에 비하여 40, 50대가 작게

나타났고, 몸무게의 경우 50대가 59.5kg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엉덩이 둘레와 허리둘레는 연령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50대가 엉덩이둘레 96.1cm, 허리둘레 79.3cm로 모든 치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스커트는 인체 하반신을 통형으로 덮어주는 형태이다. 즉, 스트레이트 스커트 기본입체가 가지는 곡선은 인체 하반신의 각 방향으로 최외방 돌출점에서 아래쪽은 수직으로 내려가는 통상의 면이며, 이 통의 둘레길이는 인체의 엉덩이둘레의 길이는 아니고 그 보다 조금 큰 하반신 전체의 외포둘레이다. 같은 엉덩이둘레라도 하반신 외포둘레의 길이는 다르고 그에 따라 여유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박순지, 1995; 박혜숙, 1987) 본 연구에는 유연한 투명판을 하반신에 둘러 배의 돌출부를 포함한 엉덩이최대둘레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엉덩이둘레보다 엉덩이최대둘레가 전연령에 걸쳐 크게 나타났으며 배의 돌출부를 포함한 엉덩이최대둘레 또한 연령증가와 함께 증가하여 50대의 경우 100.7cm로 가장 컸다. 40대와 50대를 비교했을 때 엉덩이둘레에서보다 허리둘레의 증가가 두드러지므로 허리부위의 지방침착이 다른 부위보다 심해져 허리의 굴곡이 적어지는 체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롭치(엉덩이둘레-허리둘레)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비만에 의한 지방침착이 엉덩이부위보다 허리부위에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엉덩이최대둘레-엉덩이둘레의 차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증가에 따라 배둘레의 비만정도도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년여성의 하반신 체형은 허리선의 구별이 어렵고, 배가 나오

<표 1> 응답자의 연령 분포

연령분포	평균(세)	빈도(명)	백분율(%)
만 34세-39세	36.0	52	17.3
만 40세-49세	45.3	133	44.3
만 50세-59세	54.0	115	38.3
전체	47.0	300	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출산경험

단위 : 명(%)

연령분포	출산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전체	$\chi^2 = \text{value}$
만34-39세	7(13.5)	21(40.4)	24(46.2)	52(100.0)	$\chi^2 = 52.82^{***}$
만40-49세	1(0.8)	21(15.8)	111(83.5)	133(100.0)	
만50-59세	0(0.0)	13(11.6)	99(88.4)	112(100.0)	
전체	8(2.7)	55(18.5)	234(78.8)	297(100.0)	

*** $p \leq 0.001$

<표 3> 조사대상자의 신체치수

단위 : 명(%)

항목	연령	전체	만34-39세	만40-49세	만50-59세	F-Value
키	Mean(SD)	158.5(7.0)	160.5(4.1)	157.7(9.6)	158.6(3.8)	3.00*
	Duncan		A	AB	B	
몸무게	Mean(SD)	57.1(6.5)	55.0(7.0)	55.8(5.9)	59.5(6.4)	13.94***
	Duncan		B	B	A	
엉덩이둘레	Mean(SD)	94.6(6.5)	93.7(5.7)	93.5(5.4)	96.1(7.6)	5.75**
	Duncan		B	B	A	
외포둘레	Mean(SD)	98.4(6.8)	96.5(6.0)	97.3(6.4)	100.7(7.0)	11.02***
	Duncan		B	B	A	
허리둘레	Mean(SD)	76.3(7.5)	74.0(6.8)	74.7(7.3)	79.3(7.2)	16.04***
	Duncan		B	B	A	
엉덩이-허리	Mean(SD)	18.2(5.8)	19.7(3.9)	18.8(5.5)	16.8(6.5)	5.88**
	Duncan		A	A	B	
외포-허리	Mean(SD)	22.1(5.0)	22.5(4.0)	22.5(5.4)	21.4(5.0)	1.90
	Duncan		-	-	-	
외포-엉덩이	Mean(SD)	3.9(3.3)	2.8(1.8)	3.7A(2.8)	4.5(4.1)	5.21**
	Duncan		B	B	A	

* p≤0.05, **p≤0.01, ***p≤0.001

Duncan test 결과 p<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파벳순으로 나타내었다. A>B>C>D

며 미혼 여성보다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감소하여 굴곡이 없이 밋밋한 체형으로 변해가므로 슬랙스나 스커트 제작시 허리 다트나 주름분의 설정에 연령과 체형에 따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기성복 착용실태에 관한 일반 사항

기성복 하의의 의류치수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스커트와 슬랙스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알고 있는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표 5>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55, 66으로 응답하였고, 허리둘레의 인치 치수로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300명중 65명 뿐이었다. 현재 KS 규정에 따라 의류업체는 신체치수 조합으로 치수를 표기하고 있지만 의류매장에서의 판매원과 일반 소비자들은 55, 66, 77 등의 구호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설영,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사이즈 선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하고자 구호칭으로 응답한 경우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년여성 하의의 사이즈 분포는 44에서 99까지 넓은 범위로 분포하고 있어 30대 이후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기성복을 설계 할 때에는 좀더 많은 치수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스커트 치수는 34~39세의 경우 45.7%가 66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40대의 경우 45.8%가 66, 36.4%가 77에 분포하고 있었고, 50대의 경우 56.8%가 77에 분포하고 있어 연령증가에 따라 착용 스커트 치수분포의 차이가 보여진다. <표 5>에서와 같이 슬랙스 치수도 34~39세는 50.0%가 66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40대의 경우 40.7%가 66, 39.8%가 77에 분포하고 있었고, 50대의 경우 57.7%가 77에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34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에서는 구호칭 66에 대응하는 치수를 주력해서 생산해야 할 것이며, 특히 50대의 경우 77사이즈의 비율이 스커트 56.8%, 슬랙스 57.7%로 나타나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치수를 전개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4〉 연령별 스커트 치수분포

단위 : 명(%)

사이즈 연령	만34-39세	만40-49세	만50-59세	전체	χ^2 -value
44	1(2.2)	1(0.8)	0(0.0)	2(0.8)	32.54***
55	10(21.7)	16(13.6)	2(2.5)	28(11.4)	
66	21(45.7)	21(45.7)	23(28.4)	98(40.0)	
77	10(21.7)	43(36.4)	46(56.8)	99(40.4)	
88	3(6.5)	4(3.4)	7(8.6)	14(5.7)	
99	1(2.2)	0(0.0)	3(3.7)	4(1.6)	
전체	46(100.0)	118(100.0)	81(100.0)	245(100.0)	

***p<0.001

각 연령집단 내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치수

〈표 5〉 연령별 슬렉스 치수분포

단위 : 명(%)

사이즈 연령	만34-39세	만40-49세	만50-59세	전체	χ^2 -value
44	1(2.2)	1(0.9)	0(0.0)	2(0.8)	28.98***
55	8(17.4)	16(14.2)	2(2.6)	26(11.0)	
66	23(50.0)	46(40.7)	22(28.2)	91(38.4)	
77	9(19.6)	45(39.8)	45(57.7)	99(41.8)	
88	4(8.7)	5(4.4)	6(7.7)	15(6.3)	
99	1(2.2)	0(0.0)	3(3.8)	4(1.7)	
전체	46(100.0)	113(100.0)	78(100.0)	237(100.0)	

***p<0.001

각 연령집단 내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치수

기성복 하의의 구매문항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하의 구입 장소로는 기성복이 50.0%로 연령에 상관 없이 가장 많았고, 50대에서는 맞춤복을 구입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3.2%로 34~39세의 1.9%, 40대의 6.2%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기타 중에는 '홈쇼핑을 이용한다', '수입품을 이용한다' 등이 있었다.

중년여성이 일년에 스커트나 슬렉스를 구입하는 횟수는 3~4벌(46.2%), 1~2벌(31.4%), 5~6벌(17.1%), 7벌 이상(5.4%) 순으로 나타났으며, 1~2벌을 구입하는 경우 34~39세 23.1%, 40대 30.8%, 50대 36.0%로 연령 증가에 따라 1~2벌 구입이 많아지고, 7벌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는 34~39세 13.5%, 40대 6.0%, 50대 0.9%로 연령 증가에 따라 7벌 이상의 구

입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여 중년여성의 연령에 따른 소비경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의 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연령에 상관 없이 디자인(41.6%)이 가장 많았으나 50대의 경우 치수(31.0%)와 디자인(31.0%)이 고려하는 비중이 같게 나타났다. 즉, 이 연령대의 경우 치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치수 분포도 다양해지며, 치수의 증가와 배둘레의 비만정도의 증가로 인하여 치수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성복 하의의 착용실태 문항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스커트나 슬렉스 구입시 본인의 몸에 잘 맞는 브랜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53.8%가 '브랜드에 상관 없이 잘 맞는다'라고 응답하였고 33.8%가 '브랜드에 관계없이 대체로 잘 맞

<표 6> 기성복 하의의 구매문항에 관한 조사결과

단위 : 명(%)

항목	연령	전체	만34-39세	만40-49세	만50-59세	F-Value
하의 구입 장소	시장제품	16(30.8)	40(30.8)	31(27.2)	87(29.4)	14.68*
	유명상표의 기성복	33(63.5)	66(50.8)	49(43.0)	148(50.0)	
	맞춤복	1(1.9)	8(6.2)	15(13.2)	24(8.1)	
	기타	2(3.8)	16(12.3)	19(16.7)	37(12.5)	
	전체	52(100.0)	130(100.0)	114(100.0)	296(100.0)	
년중 하의 구입 횟수	1-2벌	12(23.1)	41(30.8)	41(36.0)	94(31.4)	12.84*
	3-4벌	25(48.1)	61(45.9)	52(45.6)	138(46.2)	
	5-6벌	8(15.4)	23(17.3)	20(17.5)	51(17.1)	
	7벌이상	7(13.5)	8(6.0)	1(0.9)	16(5.4)	
	전체	52(100.0)	133(100.0)	114(100.0)	299(100.0)	
하의 선택시 고려점	디자인	31(59.6)	58(43.6)	35(31.0)	124(41.6)	19.01*
	치수	13(25.0)	31(23.3)	35(31.0)	79(26.5)	
	상표의 유명도	1(1.9)	2(1.5)	4(3.5)	7(2.3)	
	가격	0(0.0)	22(16.5)	18(15.9)	40(13.4)	
	원단	7(13.5)	20(15.0)	21(18.6)	48(16.1)	
전체	52(100.0)	133(100.0)	113(100.0)	298(100.0)		

* p<0,05

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영숙(1999)의 연구에서도 44.7%의 중년여성이 '대부분의 기성복이 잘맞는다' 라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디자인, 색상 및 무늬 측면 보다 경제성, 치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복 스타일에 대한 예민한 관심이 다른 집단(예를 들어 20대 초반의 영계주얼 집단)보다 적어 비교적 많은 수의 피험자가 기성복에 대한 만족을 표시한 것이라 하였다.

스커트나 슬랙스 구입시 해당 사이즈의 옷을 입었는데 맞지 않았던 경우를 조사한 결과 '가끔있다'가 44.6%, '거의 없다'가 30.2%, '자주 있다'가 21.1%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는 23%로 대부분의 중년여성이 해당 사이즈의 옷이 맞지 않은 경우를 경험한 것으로 보여져 제조 업체에 따라 서로 다른 치수 범위와 조합을 사용하여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어 중년여성이 자신의 몸에 맞는 치수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선은 의류구입 10회 기준시 1~3회가 58.4%, 4~6회가 16.4%, 0회가 14.4%, 7~9회 4.7%, 10회가 6.0%로 1~3회가 가장 많았다. 전혀 수선을 하지 않

는 응답자도 14.4%로 실제 수선 비율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영륜, 강혜원(1982)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신체적 만족도는 높지도 낮지도 않게 나타났고, 의복이 비교적 몸에 잘 맞지 않으며, 잘 맞지 않는 부위는 밑위길이, 허리, 엉덩이로 나타나 주로 하반신 의복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커트와 슬랙스 구입시 각 부위에 대한 치수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주 안맞는다' ~ '아주 잘맞는다'의 5점 척도로 질문을 한 결과 <표 8>과 같이 50대가 전반적으로 '안맞는 편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스커트 길이의 경우 50대(2.8)가 34~39세(3.2)에 비하여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 여성의 키는 고려하지 않은 채 허리와 엉덩이 둘레에 맞추어 일률적인 그레이딩 편차를 주고 있어 길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길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50대의 경우 34~39세나 40대 보다 신장이 유의적으로 작아 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바지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둘레 및 밑위길이는 통계적으로는 연령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

〈표 7〉 기성복 하의의 착용실태 문항에 관한 조사결과

단위 : 명(%)

항목	연령	만34-39세	만40-49세	만50-59세	전체
브랜드 맞음새	잘맞는 브랜드가 있다	7(13.5)	14(10.5)	16(14.0)	37(12.4)
	브랜드에 상관없이 잘 맞는다.	31(59.6)	77(57.9)	53(46.5)	161(53.8)
	브랜드에 상관없이 잘 맞지 않는다.	14(26.9)	42(31.6)	45(39.5)	101(33.8)
	전체	52(100.0)	133(100.0)	114(100.0)	299(100.0)
해당 사이즈의 맞음새	전혀 없다	3(5.8)	2(1.5)	2(1.8)	7(2.3)
	거의 없다	12(23.1)	47(35.6)	31(27.2)	90(30.2)
	가끔 있다.	28(53.8)	54(40.9)	51(44.7)	133(44.6)
	자주 있다.	9(17.3)	28(21.2)	26(22.8)	63(21.1)
	항상 있다.	0(0.0)	1(0.8)	4(3.5)	5(1.7)
	전체	52(100.0)	132(100.0)	114(100.0)	298(100.0)
수선 빈도	0회	6(11.5)	17(12.8)	20(17.7)	43(14.4)
	1-3회	29(55.8)	74(55.6)	71(62.8)	174(58.4)
	4-6회	10(19.2)	23(17.3)	16(14.2)	49(16.4)
	7-9회	4(7.7)	7(5.3)	3(2.7)	14(4.7)
	10회	3(5.8)	12(9.0)	3(2.7)	18(6.0)
	전체	52(100.0)	133(100.0)	113(100.0)	298(100.0)

출현빈도가 높은 항목

나 연령증가와 함께 치수 만족도의 평균점수가 떨어져 불만족한 경향이 많아 짐을 알 수 있다. 특히 50대의 경우 브랜드에 상관없이 맞는 옷이 없다는 비율, 의복 선택시 치수를 고려하는 비중, 해당사이즈 옷을 입었는데 맞지 않는 경우 등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50대에서 가장 치수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 치수 분포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허

리부위의 지방침착이 많아져 굴곡이 밋밋해지고 배둘레의 증가가 엉덩이둘레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중년후기여성의 체형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표 9〉의 의복 부위별 수선경향은 슬랙스 길이의 줄임이 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커트의 줄임이 47명으로 많았다. 그 밖에 허리둘레 줄임이 32명, 밑위길이 줄임이 31명으로 나타났다. 길이 항

〈표 8〉 기성복 하의의 부위별 치수만족도

항목	만34-39세		만40-49세		만50-59세		전체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바지길이	2.7	1.0	2.5	1.0	2.4	0.9	2.5	1.0	1.56
스커트길이	3.2A	0.8	3.0AB	0.8	2.8B	0.9	3.0	0.8	3.76*
허리둘레	3.3	0.9	3.1	0.9	3.0	0.9	3.0	0.9	1.99
엉덩이둘레	3.2	0.8	3.1	0.8	3.0	0.9	3.1	0.9	1.13
배둘레	3.2	0.8	3.1	0.8	3.0	0.9	3.1	0.8	1.80
밑위길이	3.2	0.8	3.0	0.9	3.0	0.9	3.0	0.9	1.35

* p<0.05

Duncan test 결과 p<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파벳순으로 나타내었다. A>B>C>D

〈표 9〉 의복 부위별 수선경향

항목	연령		만34-39세		만40-49세		만50-59세		전체	
	늘임	줄임	늘임	줄임	늘임	줄임	늘임	줄임	늘임	줄임
슬랙스길이	0(0.0)	31(100)	5(6.8)	69(93.2)	3(5.4)	53(94.6)	8(5.0)	153(95.0)		
스커트길이	1(10.0)	9(90.0)	4(15.4)	22(84.6)	5(23.8)	16(76.2)	10(17.5)	47(82.5)		
허리둘레	2(22.2)	7(77.8)	10(35.7)	18(64.3)	7(50.0)	7(50.0)	19(37.3)	32(62.7)		
엉덩이둘레	3(60.0)	2(40.0)	6(40.0)	9(60.0)	4(66.7)	2(33.3)	13(50.0)	13(50.0)		
배둘레	1(33.3)	2(66.7)	9(69.2)	4(30.8)	3(100.0)	0(0.0)	13(68.4)	6(31.6)		
밑위길이	1(20.0)	4(80.0)	5(20.0)	20(80.0)	1(12.5)	7(87.5)	7(18.4)	31(81.6)		

출현빈도가 높은 항목

목은 수선이 용이한 부위이므로 기성복 설계시 다소 긴 길이로 생산하기 때문에 수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치수의 적합도가 떨어지므로 소비자가 안맞는 부위로 인식(오설영, 2002)하고 실제 수선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슬랙스길이의 치수만족도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중년여성 치수규격에 있어서 신장의 다양성 반영이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엉덩이 부위 수선(26명)보다 허리부위 수선(51명)의 빈도가 높은 것은 중년층의 체형변화 결과 엉덩이와 허리 부분의 치수조합체계가 적절하지 않아 엉덩이둘레 치수를 기준으로 기성복을 구입한 후 허리부위를 그에 맞추어 수선해서 착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3. 하반신 체형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 및 선호 맞춤새

하반신 체형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 중년여성의 경우 자신의 배둘레에 대하여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배둘레가 가장 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허리둘레와 허벅지둘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허리둘레는 50대에서 자신의 허리둘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계측치가 34~39세나 40대 보다 50대가 큰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허벅지둘레의 경우 34~39세의 만족도가 40이나 50

대의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나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년여성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체중과 둘레항목이 증가하지만 허리나 배둘레에 비하여 허벅지둘레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가량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4~39세 보다 허벅지둘레가 크다 하여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인식도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쪽으로 나타났으며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에서 연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허리둘레의 경우 50대가 가장 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리둘레 만족도와 함께 50대는 인식도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배둘레는 50세의 평균점수가 1.83, 40대 2.19, 30대 2.33으로 50대가 가장 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엉덩이둘레의 경우 또한 50대가 평균점수 2.11로 가장 굵다고 인식하였다.

Mclean(1978)은 신체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장 연령대가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이영주(1998)는 20대와 30대가 자신의 체형을 그 시대의 이상형의 체형과 비교해서 만족의 정도를 느끼는 반면, 40대 이후는 자신과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 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영주(1998)는 20대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와 비교해 보면, 30대와 40대가 20대에 비해 둘레항목의 실제계측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작게 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30대라도 34세 이후의 출산 1

〈표 10〉 하반신 체형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

항목	연령	만34-39세		만40-49세		만50-59세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허리 둘레	만족도	2.46A	1.11	2.48A	1.27	2.12B	1.16	3.09*
	인식도	2.42A	0.94	2.36A	.90	2.01B	0.86	6.18**
	T 값	3.85***		0.12***		0.11***		
배 둘레	만족도	2.29	1.16	2.17	1.21	1.95	1.05	1.93
	인식도	2.33A	0.96	2.19A	0.87	1.83B	0.74	8.56***
	T 값	-3.85***		-2.26***		0.11***		
허벅지 둘레	만족도	2.06B	1.06	2.51A	1.19	2.44A	1.14	2.96*
	인식도	2.29	1.00	2.58	1.00	2.39	0.89	2.24
	T 값	-0.23***		-7.58***		5.22***		
엉덩이 둘레	만족도	2.13	0.99	2.32	1.27	2.11	1.18	1.01
	인식도	2.29AB	0.89	2.49A	1.06	2.12B	0.93	4.33*
	T 값	-0.15***		-0.17***		-8.70***		

*p < 0.05 **p < 0.01 ***p < 0.001

Duncan test 결과 p < 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파벳순으로 나타내었다. A > B > C > D

명이상을 경험한 중년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년 여성의 그룹내에서는 실제 신체치수도 가장 비만한 50대의 만족도나 인식도의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단, 허벅지 둘레의 경우 나이가 들어 비만해 짐에 따라 다리부위의 지방침착은 배나 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만족도의 점수가 34~39세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50대에 접어들면서 체형이 변화하여 같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과거의 스타일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는 것으로 사료된다(Article-Sizing, 1993).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 연령에서 모든 항목에 걸쳐 유의한 관계가 인정 되었다(표 10 참조). 중년여성 전연령에서 허리둘레는 인식하는 것에 비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배둘레의 경우 34~39세와 40대는 인식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50대의 경우 인식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허벅지둘레의 경우 34~39세의 경우

인식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인식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엉덩이둘레의 경우 전 연령에서 인식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50대는 만족도와 인식도의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50대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자신의 하반신을 약간 굵다고 인식하였고, 약간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인식하는 것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게 나타났다. 34~39세와 40대의 경우는 허리둘레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하반신 항목에서 인식하는 것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Mclean, 1978)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기성복 하의의 선호 맞춤새는 〈표 11〉과 같으며, 연령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꼭 끼게 입는다'에서 '매우 여유있게 입는다'의 5점 척도로 조사를 한 결과,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둘레, 밑위 길이의 맞춤새는 3.2로 '보통으로 입는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체형이나 연령, 개인 취향에

<표 11> 기성복 하의의 선호 맞춤새

항목	연령	만34-39세		만40-49세		만50-59세		전체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허리둘레		32	0.8	32	0.9	32	0.8	32	0.8
엉덩이둘레		33	0.7	33	0.7	34	0.7	33	0.7
배둘레		34	0.7	33	0.8	34	0.8	33	0.8
밑위길이		34	0.9	33	0.6	34	0.7	34	0.7

따라 보통의 맞춤새가 모두 동일한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체형의 변화가 부위별로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이에 따라 배둘레 등 특정 부위의 체형변화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적당히 여유가 있는 의복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맞춤새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편안함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Sontag, 1985) 정확한 맞춤새를 정량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연구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인체측정치와 만족도, 인식도, 선호 맞춤새 및 치수 만족도와의 관계

각 둘레항목의 크기 정도가 만족도, 인식도, 선호 맞춤새와 기성복 부위별 치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실제측정치의 둘레항목의 크기를 순서척도로 3등급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에 가까운 33.33분위수와 66.66분위수 사이에 속하는 집단을 중간집단으로 보고, 33.33분위수 이하를 작은집단, 66.66분위수 이상의 집단을 큰 집단으로하여 그 결과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분류된 엉덩이최대둘레 각 집단의 연령 분포를 살펴 보면 34~39세는 작은집단에 46.2%가 속해 있었고, 40대의 경우 39.1%가 작은집단, 35.3%가 중간집단에 속해 있었다. 50대의 경우 큰집단이 4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연령증가와 함께 배둘레가 비만하여지고 허리굴곡이 작아져 배둘레를 포함하여 측정된 엉덩이최대둘레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엉덩이둘레의 경우도 34~39세는 작은집단에 40.4%, 중간집단에 38.5%가 속해 있었으며 40대는

41.4%가 작은집단, 36.8%가 중간집단에 속해 있었다. 반면 50대의 경우 40%가 큰집단에 속해 있어 엉덩이둘레의 비만이 가장 큰 연령층으로 보여진다. 허리둘레는 34~39세는 46.2%, 40대는 44.4%가 작은 집단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반해 50대는 50.4%가 큰집단에 분포하였다.

분류된 측정치와 만족도, 인식도, 선호 맞춤새 및 부위별 치수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에 대하여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를 <표 13>에 나타내었다. 분류된 측정치와 만족도 및 인식도와는 전 항목에서 높은 상관을 보여 엉덩이최대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가 큰집단에 속하는 중년여성의 만족도와 인식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둘레항목이 굵은 사람은 자신의 엉덩이최대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를 가장 굵다고 인식하고 만족도도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집단 중년여성의 만족도와 인식도는 중간 점수를 보였고, 가장 작은 집단의 만족도와 인식도는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선호맞음새의 경우 엉덩이최대둘레 집단과 배둘레와 밑위길이가 상관성이 높았으며 엉덩이최대둘레가 작은집단이 큰집단에 비하여 꼭 맞게 입을 경향을 보였으며 큰집단은 여유가 많은 쪽을 선호 하였다. 엉덩이최대둘레가 큰집단에서 여유 있게 입을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신의 체형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 여유 있는 맞춤새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엉덩이최대둘레는 측정시 배둘레의 돌출부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엉덩이최대둘레가 크다는 의

〈표 12〉 분류된 실제측정치 집단의 연령분포

단위 : 명(%)

연령	측정치분류	엉덩이최대둘레 3등급			전체	χ^2 -value
		작은집단	중간집단	큰집단		
34-39세		24(46.2)	16(30.8)	12(23.1)	52(100.0)	20.82***
40-49세		52(39.1)	47(35.3)	34(25.6)	133(100.0)	
50-59세		24(20.9)	36(31.3)	55(47.8)	115(100.0)	
전체		100(33.3)	99(33.0)	101(33.7)	300(100.0)	
연령	측정치분류	엉덩이최대둘레 3등급			전체	χ^2 -value
		작은집단	중간집단	큰집단		
34-39세		21(40.4)	20(38.5)	11(21.2)	52(100.0)	15.52**
40-49세		55(41.4)	49(36.8)	29(21.8)	133(100.0)	
50-59세		26(22.6)	43(37.4)	46(40.0)	115(100.0)	
전체		102(34.0)	112(37.3)	86(28.7)	300(100.0)	
연령	측정치분류	엉덩이최대둘레 3등급			전체	χ^2 -value
		작은집단	중간집단	큰집단		
34-39세		24(46.2)	19(36.5)	9(17.3)	52(100.0)	33.62***
40-49세		59(44.4)	42(31.6)	32(24.1)	133(100.0)	
50-59세		20(17.4)	37(32.2)	58(50.4)	115(100.0)	
전체		103(34.3)	98(32.7)	99(33.0)	300(100.0)	

*p < 0.05 **p < 0.01 ***p < 0.001

출현빈도가 높은 항목

미는 배둘레 비만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배둘레의 맞음새와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밀위길이의 경우 외포둘레가 증가함에 따라 밀위길이가 길어지게 되므로 밀위길이에 충분한 여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분류된 엉덩이둘레 집단과는 허리둘레, 배둘레, 밀위길이의 상관성이 높았으며 큰 집단은 더욱 여유있는 맞음새를 선호하였다. 분류된 허리둘레 집단과 선호맞음새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분류된 엉덩이최대둘레 집단과 부위별 치수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는 배둘레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큰집단이 작은집단에 비하여 배둘레 치수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치수가 잘 맞지 않는 쪽으로 응답하였다. 분류된 허리둘레 집단과 허리둘레 치수만족도 및 배둘레 치수만족도와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으며 큰집단의 치수 불만족이 작은 집단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40대와 50대의 신체치수를 비교했을 때 엉덩이둘레에서보다 허리둘레의 증가가 두드러지므로 허리부위의 지방침착이 다른 부위보다 심해져 허리의 굴곡이 적어지는 체형으로 변화하며 특히 드롭치(엉덩이둘레-허리둘레)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엉덩이최대둘레-엉덩이둘레의 차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증가에 따라 허리굴곡이 적어지고 배가 나오는 체형으로 변해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엉덩이최대둘레가 큰 집단과 허리둘레가 큰 집단에서 배둘레와 허리둘레의 치수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허리와 배둘레 부위의 체형 변화와 일치하는 현상으로 중년여성 특히 둘레치수가 큰 집단이 많이 속해 있는 50대의 슬랙스나 스커트 제작시 허리 다트나 주름분 혹은 여유분의 설정시 이에 따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3> 실제측정치와 만족도, 인식도, 선호맞음새 및 치수만족도와의 관계

측정치분류		영덩이최대둘레			F-value
		작은집단	중간집단	큰집단	
만족도	허리둘레	3.09A	2.30B	1.63C	47.970***
	영덩이둘레	2.71A	2.20B	1.71C	19.77***
	배둘레	2.70A	2.06B	1.55C	29.91***
	허벅지둘레	2.82A	2.39B	2.01C	13.32***
인식도	허리둘레	2.85A	2.20B	1.66C	60.10***
	영덩이둘레	3.03A	2.21B	1.70C	65.34***
	배둘레	2.64A	2.01B	1.57C	51.99***
	허벅지둘레	2.98A	2.36B	2.04C	29.77***
선호 맞춤새	배둘레	3.17B	3.39A	3.43A	2.97*
	밑위길이	3.18B	3.40A	3.47A	4.84**
치수 만족도	배둘레	3.23A	3.08AB	2.91B	3.75*

측정치분류		영덩이둘레			F-value
		작은집단	중간집단	큰집단	
만족도	허리둘레	3.10A	2.19B	1.64C	45.99***
	영덩이둘레	2.76A	2.12B	1.66C	23.51***
	배둘레	2.70A	2.01B	1.52C	29.67***
	허벅지둘레	2.87A	2.32B	1.95C	16.70***
인식도	허리둘레	2.82A	2.13B	1.67C	51.61***
	영덩이둘레	3.02A	2.14B	1.70C	61.98***
	배둘레	2.60A	1.95B	1.62C	40.71***
	허벅지둘레	2.93A	2.32B	2.07C	23.66***
선호 맞춤새	허리둘레	3.07B	3.13B	3.44A	5.33**
	배둘레	3.19B	3.33AB	3.50A	3.97*
	밑위길이	3.18B	3.40A	3.49A	5.39**

측정치분류		허리둘레			F-value
		작은집단	중간집단	큰집단	
만족도	허리둘레	3.20A	2.08B	1.70C	59.00***
	영덩이둘레	2.73A	2.11B	1.76C	19.28***
	배둘레	2.84A	1.84B	1.59B	43.35***
	허벅지둘레	2.83A	2.35B	2.02C	13.31***
인식도	허리둘레	2.93A	2.11B	1.64C	81.15***
	영덩이둘레	2.93A	2.22B	1.76C	46.97***
	배둘레	2.77A	1.90B	1.53C	87.26***
	허벅지둘레	2.90A	2.45B	2.00C	25.98***
치수 만족도	허리둘레	3.12A	3.18A	2.83B	4.37*
	배둘레	3.23A	3.15A	2.84B	6.31**

*p < 0.05 **p < 0.01 ***p < 0.001

Duncan test 결과 p < 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은 평균값의 크기를 알파벳순으로 나타내었다. A > B > C > D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34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기성복 하의의 착용실태를 조사하였고,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최대둘레 치수를 측정하여 만족도와 인식도, 선호하는 하의의 맞음새 및 부위별 치수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반신 신체치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와 연령대별 모평균의 차이검정 결과 키의 경우 34세~39세에 비하여 40, 50대가 작게 나타났고, 몸무게의 경우 5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엉덩이 둘레와 허리둘레는 연령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5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엉덩이둘레보다 엉덩이최대둘레가 전연령에 걸쳐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증가와 함께 증가하였다. 엉덩이둘레-허리둘레가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였고, 엉덩이최대둘레-엉덩이둘레의 차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2. 스커트와 슬렉스 치수는 50대의 경우 77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연령증가에 따라 착용 하의 치수분포의 차이가 보여졌다. 하의 구입 장소로는 기성복이 연령에 상관 없이 가장 많았고, 스커트나 슬렉스를 구입하는 횟수는 일년에 3-4벌이 가장 많았다. 하의 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연령에 상관 없이 디자인이 가장 많았으나 50대의 경우 치수와 디자인의 고려하는 비중이 같게 나타났다. 스커트나 슬렉스 구입시 해당 사이즈의 옷을 입었는데 맞지 않았던 경우를 조사한 결과 '가끔있다'가 44.6%로 나타났다. 수선은 의류구입 10회 기준시 1-3회, 4-6회, 0회, 7-9회, 10회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부위에 대한 치수만족도는 50대가 전반적으로 '안맞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의복 부위별 수선경향은 슬렉스 길이의 줄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커트의 줄임이 많았다.

3. 중년여성의 하반신 부위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허리둘레는 50대에서 자신의 허리둘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벅지둘레의 경우 34-39세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식도의 경우도 허리둘레는 50대가 가장 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리둘레 만족도와 함께 50대는 인식도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배둘레의 경우 50대가 가장 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엉덩이둘레의 경우 또한 50대가 가장 굵다고 인식하였다.

중년여성 전연령에서 허리둘레는 인식하는 것에 비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배둘레의 경우 34-39세와 40대는 인식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50대의 경우 인식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허벅지둘레의 경우 34-39세의 경우 인식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인식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엉덩이둘레의 경우 전 연령에서 인식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50대는 만족도와 인식도의 값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4. 각 둘레항목의 크기 정도가 만족도, 인식도, 선호 맞음새와 기성복 부위별 치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분류된 측정치와 만족도 및 인식도와는 전 항목에서 높은 상관관을 보여 엉덩이최대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가 큰집단에 속하는 중년여성의 만족도와 인식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선호맞음새의 경우 엉덩이최대둘레 집단과 배둘레와 밀위길이의 상관관이 높았으며 작은집단이 큰집단에 비하여 꼭 맞게 입는 경향을 보였으며 큰집단은 여유가 많은 쪽을 선호 하였다. 분류된 엉덩이둘레 집단과는 허리둘레, 배둘레, 밀위길이의 상관관이 높았으며 큰 집단은 더욱 여유있는 맞음새를 선호하였다. 분류된 엉덩이최대둘레 집단과 부위별 치수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는 배둘레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큰집단이 작은집단에 비하여 배둘레 치수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치수가 잘 맞지 않는 쪽으로 응답하였다. 분류된 허리둘레 집단과 허리둘레 치수만족도 및 배둘레 치수만족도와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으며 큰집단의 치수 불만족이 작은 집단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50대에서 가장 치수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 치수 분포도 다양하게 나타났

으며 이는 허리부위의 지방침착이 많아져 굴곡이 밋밋해지고 배둘레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중년후기 여성의 체형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만족도 및 인식도의 경우도 중년여성의 그룹내에서는 실제 신체치수가 가장 비만한 50대의 만족도나 인식도의 점수가 낮게 나왔다. 단, 허벅지 둘레의 경우 나이가 들어 비만해 짐에 따라 다리부위의 지방침착은 배나 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만족도와 인식도의 점수가 34~39세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류된 측정치와 만족도 및 인식도는 큰집단에 속하는 중년여성의 만족도와 인식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선호맞음새의 경우 작은집단이 큰집단에 비하여 꼭 맞게 입는 경향을 보였으며 큰집단은 여유가 많은 쪽을 선호 하였다. 치수만족도와외 관계에서는 큰집단이 작은집단에 비하여 치수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치수가 잘 맞지 않는 쪽으로 응답 하였다. 즉, 중년여성 중에서도 50대 특히 엉덩이둘레, 엉덩이최대둘레, 허리둘레가 큰 집단에 속하는 여성의 인식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기성복에 대한 불만사항도 많았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의복제작 시 이러한 불만사항과 체형변화를 커버할 수 있는 의복치수 및 여유분을 고려한 의복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최대둘레의 크기 정도가 만족도, 인식도, 맞춤새 및 치수만족도와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둘레항목의 크기를 순서적으로 하여 비교하였으나 차후에는 비만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중년여성의 신체이상치를 조사하는 등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립기술품질원(1997).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김혜경 외(2001). 피복인간공학연구방법론. 교문사
 박순지(1995). 중년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 분석에 따른 슬랙스 원형 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숙 역(1995). 피복구성학 이론편. 문화여자대학

교 피복구성연구실편. 경춘사.
 오설영, 천중숙(2002). 한국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 체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50-61.
 이영륜, 강혜원(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17-24.
 이영숙(1999). 중년여성 기성복의 현황에 관한 연구. 원주대학술논총, 30, 433-452.
 이영주(1998). 슬랙스 제작을 위한 성인 여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 분석-30세에서 49세까지-. 한국의류학회지, 22(1), 127-138.
 이진희, 최혜선, 박수찬, 김진호(1994). 성인여자 기성복의 치수 간격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집, 13(1), 59-74.
 임원자, 최해주(1988). 표준의복원형설계법에 관한 연구(I)-부인복 길·소매·스커트 원형설계-. 한국의류학회지, 12(1), 93-113.
 최혜선, 이경미(1995). 중년여성 기성복의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187-202.
 추희경(1994). 체형별 스커트 원형 연구-평면재단과 입체재단의 비교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rticle-Sizing (1993). A study in size and shape. *Bobbin*, 80
 Mclean, F.P. (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clothing satisfaction*. The Utah State University.
 Sontag, M.S. (1985). Comfort dimensions of actual and ideal insulative clothing for older women. *Clothing&Textiles Research Journal*, 4(1), 9-17
 Sunsan P. Ashdown, Marilyn Delong (1995). Perception testing of apparel ease variation. *Applied Ergonomics*, 26(1), 47-54.
 Watkins, S.M. (1995). *Clothing-The Portable Environment*. Iowa State University Press/Ames.

(2002년 11월 20일 접수, 2003년 2월 7일 채택)